

# 금구원 조각공원 조각가 김오성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를 방문했을 때 소행성 모양의 조각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 이런 것이 한국천문연구원 앞마당에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오래 전에 미래내성우회에 참여하던 선배로부터 별보는 조각가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엄청 좋은 굴절망원경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나중에 우리나라 조각공원의 효시가 된 금구원 조각공원을 집으로 삼고 있는 조각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 개인 천문대 제1호 금구원 천문대의 천문대장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에 자리 잡고 있는 금구원 조각전시장, 천문대로 그를 만나러 갔다. 아마추어천문인 조각가 김오성.

금구원 조각공원에 들어서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작은 별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둥근 집이다. 김오성 씨가 2002년에 직접 만든 집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진 직경 9.2m에 달하는 실내 전시실이다. 달 모양을 연상할 수 있는 분화구 창문으로 자연광을 받도록 되어있다. 널찍한 조각공원 안에는 대리석과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주로 여성의 몸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눈에 많이 보였는데, 리얼리티가 살아있으면서도 세부적인 터치를 생략해서 미세한 떨림의 여지를 남겨둔 것 같아 보였다.

눈을 돌리니 금구원 조각공원 천문대가 바로 눈에 들어왔다. 살림집과 붙어있는 천문대도 김오성 씨가 직접 지었다고 한다. 1991년에 지었는데, 천문대는 화강암으로 6m 높이까지 쌓고 그 위에 직경 3.2m 구리 돔을 올렸다. 언뜻 보기에도 육중하고 견고해 보였다. 화강암과 조화를 이룬 구리 돔 자체가 조각 작품 같아 보였다. 이 돔 속에는 206mm 굴절망원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망원경을 올려놓는 마운트에도 조각가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마운트

를 둘러싸면서 여체들이 목각되어 있다.

천문대가 딸려 있는 살림집에 들어서니 제일 먼저 현관 오른쪽에 엄청나게 큰 별자리판이 보인다. 지름이 1.5m는 되어 보였다. 아버지와, 역시 조각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이 만든 조각 소품들이 마루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천문대 돔으로 통하는 계단 옆에 놓여있는 그랜드 피아노 윗벽에는 초승달을 그린 유화가 걸려있었다. 또 다른 벽면에는 누드의 여인이 달 주위에서 우주유영을 하면서 거꾸로(우주 공간에서는 '거꾸로'라는 개념이 없지만) 떠 있는 그림이었다. 역시 유화였다. 집 앞 잔디밭에 서 있는 화강석 조각 작품 '달과 여인'의 그림 작품인 것 같았다.

부인이 내놓은 매실차를 마시면서 화제는 어느덧 아마추어천문가들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낮익은 이름들이 거명되었고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동원해서 그들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반사경 제작의 대가였던 나은선 할아버지, 바이킹 화성탐사선이 찍은 사진을 나눠주시던 윤실 선생님, 천체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시던 김성수 선생님, 이런 분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김오성 선생님과 함께 아스라한 추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침내 한 일본 아마추어천문인이 기증했던 30cm 반사망원경의 묘연한 행방에 대한 이야기에까지 화제가 뻗치고 있었다. 처음 뵈는 자리였지만, 강한 동지 의식이 느껴졌다. 드디어 화제는 어린 시절 그림과 별에 대한 김오성 선생님의 이야기로 넘어갔다.

"어릴 적에는 까불대는 성격이었어요. 호기심 많고 엉뚱하고 그랬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그리워하고... 편평한 곳만 있으면 아무 곳이나 그림을 그릴 정도로 좋아했었나

박요. 제주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조각가가 뭔지는 몰랐고 그냥 화가가 되겠다고 하고 다녔었지요. 숙명처럼 말이죠. 여기서 동쪽으로 좀 더 가면 도요지 유적지가 있는데, 그곳이 고향 마을이예요. 어두운 시골이라서 늘 깜깜하고 별 보기 좋았어요.”

가까운 곳에 산도 있고, 개울도 있고, 바다도 있었다고 한다. 돛을 단 범선 보는 재미도 있었고, 갯벌에서 조개도 줌고, 고기도 잡았다고 한다.

“참 좋은 환경이었어요. 나물 캐는 풍경이며, 모내기가 끝나면 세상이 확 바뀌어서 온통 새파랗던 느낌도 좋았고요. 모내기 하면서 ‘농부가’가 질로 튀어 나왔어요. 미개했지만 순박함을 간직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혜성이 온다고 한 바탕 난리를 떨었던 기억도 나네요. 아이들 키를 훌쩍 넘는 호밀밭도 있었어요. 그곳에 도깨비가 산다는 등, 나타나서 누굴 흘렸다는 등, 그런 이야기가 풍성했어요. 밤에는 반딧불이를 잡아서 모아가 지고 환하게 밝히고 다녔습니다. 장마 끝나면 하늘이 온통 잠자리 떼로 뒤덮이곤 했지요. 눈에 선하네요.”

세상 모든 곳이 화폭이었고, 보이는 것이 자연이고 별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별과 그림은 그냥 그렇게 원래부터 있었던 고향 같은 것 같았다.

“별이 정말 쏟아지듯 많이 보였어요. 아버지께서 직녀성과 견우성을 알려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좀생이별이 기억에 남아요. 강한 인상을 줬는데 정겨움도 함께 느꼈어요. 힘든 겨울을 같이 나고 봄을 같이 그리워한다고나 할까요. 지금도 제일 좋아합니다.”

별은 날마다 보는 것이었고, 그림도 남달리 재주가 뛰어났던 소년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공포의 밤도 기억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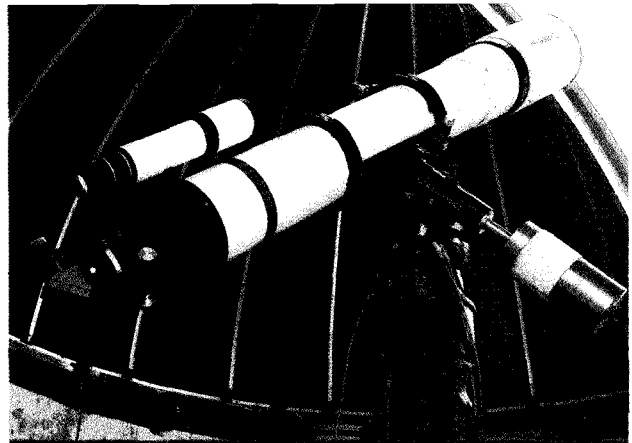
“변산 지역에 빨치산들이 한동안 활동했었어요. 밤에 총소리도 나고 했지요. 군인들이 총 들고 돌아다니고, 우리들은 탄피 따먹기 놀이도 하고 놀았어요.”

언젠가 외국 잡지에서 아이들이 큰 망원경을 통해서 화성을 관측하고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장면이 인상이 깊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슴에 묻어 두고 있었다고 한다. 1966년에 서울에 온 후에 처음으로 망원경을 접하기 시작했다.

“별이 보고 싶어서 국립천문대에 전화해서 노동력을 무보수로 제공하고 망원경 실습을 하고 싶다고 제안한 적도 있었어요. 결정을 내려야할 분이 외국 출장 중이어서 무산되었지요.”

1986년에 서울 종로 화신 앞에 있던 망원경 가게에서 71만원을 주고 80mm 굴절망원경을 구입했다. 이 망원경으로 1988년 초여름을 붉게 달구었던 화성대접근을 맘껏 즐길 수 있었다. 1986년에 열렸던 개인전이 성공하면서 매스컴도 많이 타고 돈도 좀 모았다. 이 무렵부터 아마추어천문인 모임인 미래내성우회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일본 아마추어천문 잡지에 실린 미국 ‘아스트로 피직스’ 사가 제작한 굴절망원경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178mm 굴절망원경을 사기로 마음먹고 직접 은행으로, 국세청



으로 쫓아 다니고 미국 본사로 편지하고 전화하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전화비만 100만 원정도 나왔어요. 친구 도움도 받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주문한지 22개월 만에 망원경이 도착했습니다. 1991년 말에 귀향하면서 집을 기가 막히게 짓겠다는 욕심을 접고 대신 지금 갖고 있는 206mm 굴절망원경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9개월 만에 도착했다. 당시 돈으로 거금 15,000달러를 주고 산 보물이었다.

“이곳이 한국일보에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처음에는 라면도 끓여주고 별도 보여주고 그랬었습니다. 국내 최초 개인 천문대로 유명해진 것이지요. 아버님께서 편찮아지시면서 잠시 문을 닫았었어요. 다시 문을 열면서 유료로 전환했어요. 그 전에는 근처 동네 아이들을 8명씩 조를 짜 놓고 맑은 날이면 데리고 와서 별보여주고 데려다 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꼬박 두 달 걸립니다.”

슈메이커-레비 혜성을 촬영해서 문화일보에 특종으로 실렸던 일, 해일-밤 혜성을 봤던 감홍 이야기가 이어진다. 이 혜성을 그림으로 그려서 신문에 실었던 일화도 소개한다. 김오성 선생님의 별 이야기는 대상이 바뀌어가면서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하쿠다케 혜성을 지만큼 많이 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말 인상 깊게 실컷 봤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마루에 걸려있던 친구 정군수 씨의 ‘별’이 속삭이듯 눈에 들어왔다.

별

변산에 오면

변산의 별들이 만아름다운지를 안다.

쏟아지는 운석을 쫓아서

별밭을 만들어 놓은 금구원조각공원

변산에 오면

하늘의 별자리를 옮겨 놓으려고

자기 몸을 깎아서 별을 만드는

김오성을 만난다.

그곳에는 ‘김오성’이 걸려있었다. 어쩌면 그는 우주 어느 곳에서 다른 운석을 찾아 이곳에 떨어져 정착한 하나의 운석인지도 모르겠다.